

성모님의 마음을 담은

2019

성모기사

03



3월 봉헌기도



원죄 없으신 어머니 동정마리아님!
어머니께서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저를 원하시니
언제나 제 자신의 모든 것을 어머니께 봉헌하며
오늘 이 봉헌을 새롭게 합니다.

오, 저의 여왕, 교회의 어머니시여!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어머니의 사명에 제가 충실히 협력하기를
오로지 당신께 청합니다.

오, 원죄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여!
오늘 제가 바치는 기도와 활동과 희생을 즐겨 받으시어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할 수 있게 하소서.

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어머니께 도움을 청하는 저희와
어머니의 도움을 외면하는 이들,
특별히 교회를 적대시하는 이들과
어머니께 맡겨진 모든 이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요셉 구원모	02
요한계 문헌에 나타난 성모님 한규희	06
프란치스칸 영성 - 평화 최우식	12
가난한 우리들의 어머니시여! 홍민용	21
우리의 의지와 하느님의 의지 진동길	24
봄 강 아만다/시·변수현 /그림	30
주님께 청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순현	32
임상사목교육 CPE(Clinical Pastoral Education)와 내면의 알아차림 황재민	37
원죄 없으신 성모의 기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영성의 사도직 오정순	42
사순 시기 (Quadragesima/ Lent) 박용희	47
함께하는 이모저모	52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뚫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루카 2:35)



그림 : 진동길 마리오 신부

요셉

구원모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 찬미예수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그분의 선하심이 끈베틀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한국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 관구의 동반자이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3월 19일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입니다.

대축일, 이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영광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인 축일은 기념일이며, 사도들 역시 축일에 그칩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요 예수님에 앞서 미리 길을 닦고 순교한 세례자 요한의 축일이 대축일이며, 교회의 기둥인 바오로 사도와 베드로 사도 역시 두 분 합쳐서 대축일입니다. 그 외에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녀나 김대건 신부님처럼 대축일로 지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보편교회가 아닌 선교지방과 우리나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성 요셉 성인께서는 다른 성인들과 사도들까지도 뛰어넘어 대축일이 부여될만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 성인의 삶은 그다지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성인은 예수님 공생활 전에 돌아가셨기에 성모님과 달리 예수님의 활동도 수난도 영광도 보지 못하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양부란 점을 제외한다면 가난한 목수로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는 이렇게 성 요셉을 공경하는 것일까요?

은 좋게 예수님의 양부가 되었기 때문일까요?

대축일 미사 복음을 보겠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마태 1,19)

‘의로운 사람’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대축일 미사 2독서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너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에 따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주신’ 것입니다.”(로마 4,18,22)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느님을 따랐던 아브라함처럼 요셉 성인 역시 하느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았기에 꿈에서 주님의 천사가 전하신 ‘성모님을 아내로 맞이들이라’는 말씀에 온전히 따랐습니다.

더 나아가 헤로데의 위협에서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선 이집트로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평생토록 성심성의껏 성모님과 예수님을 보호했으며, 하느님께서 바라신 성가정을 이루고 지켜나갔습니다.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그렇게나 바라고 원하셨던 인간의 참모습을 보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을 통해 생각하지도 못한 선물—돌봄과 보호—을 처음으로 받으셨습니다.

요셉 성인과 같은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얻고, 기도를 통해 주님을 뵈고, 미사성제를 통해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매일의 삶을 봉헌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요셉 성인에게 성모님과 예수님께서 함께하셨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성체를 통해 오시며, 예수님과 늘 함께하시는 성모님께서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깁시다. 우리 참 어머니, 원죄 없으신 성모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로 나아갑시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좋아!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요한계 문헌에 나타난 성모님

한규희 보나벤투라

현대 가톨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이라는 출발점에서 20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 있다. 2000여 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 가운데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공경과 신심’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가톨릭교회의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공경과 신심은 이미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긴 세월 동안 많은 논쟁을 겪으며 교회 안에서 그 풍요로움을 꽃피우게 되었다.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공경과 신심의 이러한 발전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할 때 마리아에 대해 침묵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믿는 이들을 위해 기록으로 남긴 복음서들이 그 좋은 예이다.

복음서 안에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는 중요한 순간마다 마리아가 언급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니 더 나아가 초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리아의 모습
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마리아의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예
수 그리스도의 구원사건의 신비에 절대적으로 종속되어
있음을 드러내 준다. 마리아의 신원이나 정체 그리고 사
명이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만 올바르
게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오랜 교회 역사 안에서 성모 신심은 지나치게 과
장되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본모습을 가릴 정도로 변
질되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서는 마리아에 대한 올바른 공경과 신심 행위를 고
취시키기 위해서 마리아와 그리스도의 밀접한 관계성, 마
리아와 교회의 친근한 관계 그리고 우리 각자와의 관계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공경과 신심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
도에게로 인도해준다. 즉 마리아에 관련된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방향 지워져 있다. 교회가 성모 마리아
에 대한 공경과 신심을 설명하고 가르치며 권장하는 이유
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올바른 마리아 공경과 신심은 우리
를 영적으로 쇄신되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

비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도와준다.

마리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정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 마리아가 언급되고 있는 구절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마리아에 관한 신학적 지식의 규범적 기초와 근거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신약성경 저술 시기의 끝자락에 위치하는 요한계 문헌 안에서 언급되고 있는 마리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한계 문헌의 신학 사상은 신약의 다른 책들에 담긴 신학 사상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히 다르다. 이러한 점을 통해 우리는 초기 교회 안에서 요한계 문헌이 기술되었던 이 시기에 모종의 신학적 발전이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다. 따라서 요한계 문헌에 담긴 마리아에 대한 신학 사상 또한 발전되었음은 분명하기에 이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요한계 문헌에서 마리아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곳은 요한복음서와 요한묵시록이다.

요한복음서에서는 마리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두 구절에 나오고 있다. 하나는 ‘카나의 혼인 잔치’(요한2,1-12)이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 곁에 선 마리아’(요한 19,25-27)

이다.

요한묵시록에는 마리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상징적으로 암시된 한 구절이 있다. 묵시 12,1-18에서 언급되는 ‘여인’이 바로 마리아를 암시하는 것이다.

앞으로 요한계 문헌 안에서 마리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이 세 구절, 요한 2,1-12와 19,25-27 그리고 묵시 12,1-18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구절들을 통해 요한계 문헌이 기술되던 초기 교회에서 마리아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발전되었고 또 이 구절들 안에 담긴 마리아에 대한 신학 사상이 현대 교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먼저 요한복음서와 요한묵시록에 나타난 마리아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기에 앞서, 본문에 대한 전이해(前理解)로 성경이 저술되던 시대의 마리아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요한 2,1-12와 19,25-27 그리고 묵시 12,1-18이 요한복음서와 요한묵시록의 전체 구조 안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이 구절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기술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다음에는 요한복음서에서 마리아가 직접 언급되고 있는 두 구절, 요한 2,1-12와 19,25-27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우선 각 구절의 구조를 분석한 다음, 요한복음서 저자의 마리아에 대한 신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석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요한 2,1-12에서 나오고 있는 예수와 그 어머니 사이의 대화와 ‘계시의 도식’에 따라 서술되고 있는 요한 19,25-27 안에 담긴 요한복음서 저자의 마리아에 대한 신학을 살펴볼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해 각 구절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마리아의 위상과 역할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이 두 구절, 요한 2,1-12와 19,25-27 사이에 존재하는 연관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후로는 묵시 12,1-18에 등장하는 ‘태양을 입은 여인’이 마리아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 구절의 구조를 분석한 다음, ‘여인’이 언급되고 있는 묵시 12,1-6과 12,13-18을 중점적으로 주석해보고자 한다.

이 작업을 통해 ‘여인’이 지니는 근본적인 의미를 밝히고 이 ‘여인’과 마리아가 어떤 연관성을 띠고 있는지 또 정당한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한계 문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마리아의 ‘모성적 중재 역할’과 ‘교회의 어머니’라는 신학 사상이 현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교회 헌장(Lumen Gentium, 1964)」 제8장과 공의회 이후 발표된 마리아에 관련된 두 교황 문헌, 『큰 징표(Signum Magnum, 1967)』와 『구세주의 어머니(Redemptoris Mater, 1987)』 그리고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프란치스칸 영성 - 평화

최우식 프란치스코

가난 - 사랑과 겸손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세속적 가치(돈, 명예, 권력, 성적 만족 등)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께서서 함께 계시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며 오히려 행복해하는 것을 볼 때가 있다. 부러운 것이야 많지만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본다. 물론 그들이 이 습우화의 여우처럼 따먹지 못하는 감을 바라보며 저 감은 먹을 수 없는 것이라고 자기합리화를 하는 것은 아니다.

프란치스코에게 있어서 가난은 모든 성덕의 근원이다. 한 가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른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 선택한다는 것은 곧 포기한다는 것이고, 살아간다는 것은 죽어간다는 것이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13)는 말씀처럼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는 자기 몫을 포기하는 아픔이 수반되게 마련이다.

가난은 자기로부터의 이탈을 통한 하느님 은총에 대한 개방을 말한다. 이는 자기비하 및 비움을 의미하는 겸손

을 일컫는다. 그러므로 가난은 사랑과 겸손을 낳으며, 이를 통하여 가난을 실천하는 자체가 하느님 안에 깊이 동참하며, 그분을 만나고 은총의 선물로서 평화를 지니게 되는 것을 뜻한다.

프란치스코는 복음에 따라서 자기 생활을 하느님께로 돌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회개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들, 특히 나병 환자를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였다. 그는 가난을 항상 그리스도의 삶에 직결된 것으로 여겼으며, 가난과 고통을 한 몸에 지니신, 가난하게 태어나시고 고통 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써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평화의 역사적 구현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용하게 되었다.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적극 동참하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고난은 세상의 죄를 대신해 걸머지심과 동시에 죄의 원인이며 원흉인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양면성을 담고 있다.

온화한 미소에 편안해 보이는 부처님과 달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누구나 예수님을 동정하게 된다. 프란치스코도 예수님을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겼다. 성 다미아노 성당의 십자가 앞에서 폐허 상태에 있던 교회를 재건하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깨달았을 때부터 십

자가에 못 박히신 분에 대한 거룩한 연민의 정이 그의 영혼에 깊이 새겨졌다.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할 때, 온유한 연민의 정은 그를 변화시켜 스스로 십자가에 수난하기를 바라는 자가 되게 하였다. 그가 겸손되어 자신을 이웃에게 내어 놓도록 인도한 것도, 그리고 온갖 피조물과 인간과의 조화를 회복시킴으로써 그로 하여금 원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한 것도 역시 이 ‘사랑에 찬 동정심’ 바로 ‘연민’이었다.

프란치스코는 평생에 걸쳐 예수님의 육화, 그리스도의 낮아짐,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짐승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가장 억울하고 불쌍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닮고자 하였다.

자신을 낮추어 내려가다가 그당시 모두에게 버림받았던 나병 환자에게까지 내려가고, 그곳에서 더 내려가다가 짐승과 풀, 나무와 물질에게까지 내려가 맞닿았으며, 누나인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맞이한 그는 마침내 하느님께 모든 것을 되돌리고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은 텅 빈 삶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이처럼 프란치스코에게 있어서 겸손의 모범인 육화는 하느님과 공감하고 한 마음이 되는 신비이며, 모든 피조물

을 그리스도를 만형으로 하여 하느님의 대가족 가운데서 형제자매로 통합하는 길잡이였다.

프란치스코의 가난은 형제인 그리스도에의 사랑에 찬 동정심에서 발전한 것이며 모든 피조물의 존재와 존엄성의 확인이었다. 피조물은 사랑받아야 한다. 단 사랑으로 인해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것을 금하는 가난의 정신과 함께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사랑해야 한다.

단순함

단순함은 하느님께로 가는 가장 올바른 길이며 하느님을 직관하는 길이다. 하느님께서는 지혜로운 자에게 감추신 것을 당신의 종에게는 보여 주셨는데, 그 길이 단순함 또는 단순성이다. 단순함은 자신의 흠을 개의치 않고 하느님의 무한한 아름다움에 쫓리게 하여 직접 하느님을 뵈도록 인도한다.

프란치스코에게 있어서 단순함은 마음의 가난함과 의로움의 열매이다. 또한 일치를 뜻하기도 한다. 그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자기가 복잡하게 풀어나가야 할 추상적인 수수께끼가 아니라 신뢰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이런 관점은 현실을 사는 사람들한테서는 환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실로 프란치스코는 이 때문에 오해를 받았다. 한

번은 다른 형제들이 그에게 분별력을 갖고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지적했을 때 “형제들이여, 주님께서 친히 나를 단순함의 길로 부르셨고, 단순성의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단순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정화의 과정을 통하여 얻어지며, 덕행으로 진리를 구하며 교만과 허식에서부터 해방을 가져다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보나벤투라는 그의 저서인 삼중도에서 하느님의 복되심에 참여하는 천상적 복락을 이야기하면서 복락을 평화, 진리, 사랑 세 요소의 복합체라 표현하고, 여기서 평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정화의 길을 통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단순함이 하느님을 뵈도록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단순함으로 사는 사람, 단순하게 사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으며 평화 속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프란치스코가 남긴 작품을 보면 그는 평화와 일(노동)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유언¹⁾

《유언》에 나타난 평화는 얼핏 보기에 ‘일’과 ‘가난’이 언급되는 항목의 가운데에 부자연스럽게 덧붙여진 것처럼 보인다. 허나 이렇게 언급된다는 사실만으로도 평화가 내포하고 있는 바가 다른 어떠한 개념보다도 의식의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프란치스코에게서 가난이 차지하고 있는 중심적인 위치는 부정할 수 없다. 세련되고 원숙한 작가이기보다는 오히려 시인인 그의 문학적인 맥락에서 볼 때, 그가 평화의 중요성을 잊은 채 작품을 서술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비록 덧붙여진 듯이 평화가 서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프란치스코가 말하고 실천한 그 평화는 결국 하느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여 주신 것으로 나타난다. 일과 평화가 하나의 내용으로 서술되면서 ‘형제들이 진정으로

주1) 그리고 나는 내 손으로 일을 하였고 또 지금도 일하기를 원하며 다른 모든 형제도 올바른 허드렛일에 종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할 줄 모르는 형제들은 일의 보수를 받을 욕심 때문이 아니라 모범을 보이고 한가함을 쫓기 위해서 일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의 보수를 받지 못할 때에는 집집마다 동양하면서 주님의 식탁으로 달려갑시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평화를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인사를 주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셨습니다. 형제들은 성당과 초라한 집 그리고 형제들을 위해 세운 모든 건물이 우리가 회칙에서 서약한 거룩한 가난에 맞지 않으면 그것들을 절대로 받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며, 거기서 나그네와 순례자같이 항상 손님으로 머무십시오.(유언 20-24)

해야 할 일은 평화'라고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실재를 바라보는 프란치스코의 관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평화임이 유언에 드러나 있다. 프란치스코 학자인 카예탄 엡세르(C. Esser)는 이에 대한 주석에서 사실상 '일의 태도'에 관한 항목의 계속적인 진술로서 평화가 취급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이 두 단락이 잇따라 서술되면서 하나의 중요한 권고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일에 대한 권고가 다소 어색할 정도로 하나하나 조목조목으로 말하여지고 있는 반면 평화에 대한 권고는 표현의 단순함으로 한결 더 깊은 감명을 준다는 것이다.

태양 형제의 노래 ²⁾

이 노래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은 존재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행동양식에 의해서도 하느님을 찬미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자든 여자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느님의 모상대

^{주2)} 내 주님, 당신 사랑 까닭에 용서하며, 병약함과 시련을 견디어 내는 이들을 통하여 찬미받으시옵소서. 평화 안에서 이를 견디는 이들은 복되오니 지극히 높으신 이여, 당신께 왕관을 받으리소서이다.(태양 형제의 노래 23-26)

로 만들어졌고, 그들이 용서를 청하고 시련을 겪을 때, 그리고 평화로이 참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가는 더 한층 높이 들어 높여지고 계속된다는 것이다.

만일 용서하는 것이 능동적인 면으로 보이고, 참는 것이 수동적으로 보여진다면, ‘평화로이 참는 것’은 두 가지 면의 조화일 것이다. ‘평화로이 참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프란치스코에게 있어서 ‘평화’와 ‘인내’가 종종 함께 발견된다는 것이다. 참는 것은 피조물의 행동양식이다.

‘평화로이 참는다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이미 《유언》에서 보았던 것처럼 ‘평화로이 참는다는 것’은 평화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프란치스코의 양식이다. 이 평화는 쉽게 오는 것이 아니다. 평화를 말하는 《유언》과 《태양의 노래》 두 항목에서 평화추구는 매우 힘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평화는 ‘일’로부터 태어나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고통의 측면을 지닌 참을성과 인내의 시험인 것이다. 평화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말해지고 발견될 수 있으며, 실천을 요하는 지극히 어려운 ‘일’인 것이다.

정말 의로운 자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늘 피조물과 더불어 하느님을 찬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진정 정평창보(정의·평화·창조질서보존)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피조물과 더불어 드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가난한 우리들의 어머니시여!

- 노트르담 드 바뇌 -

홍민용 알로이시오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시선으로는 정말 보잘것없고 하느님으로부터도 가장 멀어진 것처럼 보였던 이 마리에뜨 베코라는 소녀에게 성모님께서서는 나타나신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필자가 바뇌 성지에서 직접 인터뷰했던 성지 담당 레오 빨므 신부는 이렇게 말했다.

“이곳은 물론, 많은 유럽 사람들이 믿음에 관심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모님께서 ‘믿음에 관심이 없다면 할 수 없지’라고 하십니까? 성모님께서서는 할 수 없다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믿음의 길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고 어떻게 보면 신앙을 잃은 것 같이 살던 마리에뜨 베코에게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것은, 레오 신부의 말처럼 그 어린 소녀를 통해 우리도 잃어버린 그 믿음을 다시 찾기를 바라신 것은 아닐까?

첫 번째 발현

1933년 1월 15일 주일 저녁, 집안에서 밖에 나간 동생을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보던 마리에프는 어느 순간 창문 너머로 빛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발견한다. 밖에서 있는 빛나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한 마리에프는 램프를 들고 와 다시 창밖을 내다봤다. 그러자 선명하게 드러난 그 여인의 모습은 놀라웠다. (2011년 향년 90세의 나이로 선종한 마리에프 베코 여사의 증언을 직접 들은 성지 담당 신부 레오 빨프는 인터뷰에서, 마리에프가 이때 자신 앞에 발현한 그 여인을 보고 '아름다운 부인'이라 표현했다고 전했다.)

놀란 마리에프는 자신이 목격한 그 빛나는 여인에 대해 어머니에게 말했다. 하지만 마리에프의 말에 창문을 바라본 어머니의 눈에는 단순히 빛나는 무엇인가만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다. 마리에프는 곧 이 아름다운 부인이 성모 마리아라고 확신하고, 부엌의 서랍장으로 가서 며칠 전에 길에서 찾은 묵주를 가져와 묵주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이에 성모님께서는 마리에프에게 나오라고 손짓을 하셨지만, 그녀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마리에프의 어머니가 마리에프에게, 그녀와 이야기하는 그 부인은 마녀라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실랑이하는 사이 그 아름다운 부인은 사라지셨다.

다음날, 마리에뜨는 오랜만에 학교에 가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만 조심스럽게 성모님을 봤다고 말했다. 이 친구는 이 사실을 바로 본당 주임 신부에게 알렸고,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 신부는 마리에뜨를 믿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소문이 나서 동네의 많은 사람이 알게 되었지만 다들 열두 살 어린아이의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성지 담당 신부는, 80세가 훨씬 넘은 마리에뜨를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않았을 때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그녀가 자주 말했다고 전했다.)

본 글은 <아이콜베>에서 제작한 “가난한 우리들의 어머니시여! -노트르담 드 바뇌-” 영상의 내용을 편집, 각색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아이콜베>에서 제작한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가난한 우리들의 어머니시여”라는 제목으로 검색하시면 시청 가능합니다.



마리에뜨 베코와 그 식구들이 살았던 집. 지금도 성지에 가면 볼 수 있다.

곶베틀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부
성모기사회 대전지구 담당

우리의 의지와 하느님의 의지

진동길 마리오

성모님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순절과 함께하는 3월입니다. 봄기운이 흐르는 계곡물 소리에서 새싹들의 아우성이 들릴 듯한 달입니다. 유달리 3월에는 형님인 태양이 눈부셔 보입니다. 한적한 공원길을 걷다 보면 곳곳에 연녹색의 이파리들이 성모님의 손길이 닿은 듯, 아기 웃음을 짓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눈길이 머무는 계절입니다.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꽃이 피고 새싹을 틔우는 나무들을 볼 때면, 창조주의 따사로운 손길에 저절로 찬미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생명일지라도 하느님의 섭리와 다스림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신발이 없다고 한탄했는데...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 전 재산을 날리고 빚까지 짊어져 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루는 무작정 걷다가

횡단보도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도로 맞은편에 양쪽 다리가 없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 장애인은 바퀴를 단 나무판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행신호가 켜지자 양손으로 땅을 짚으면서 도로를 건너오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 순간 눈이 마주치자 그가 쾌활하게 웃으면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날입니다.”

이일을 계기로 그는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글귀를 욕실 거울에 붙여두고 매일 면도할 때마다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나는 신발이 없다고 한탄했는데, 오늘 나는 거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 데일 카네기, 『카네기 성공론』

시련의 시간에

누구나 한 번쯤은 “왜? 하필 내게만 이런 시련이 오는 것일까?”라는 말을 툭 내뱉게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옆친 데 뿔친다’고 하지요. 시련은 고통과 번뇌와 함께 올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요셉 성인의 삶이 그랬지요.

복음이 전하고 있는 나자렛 목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그때의 보통사람들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주님께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혼한 마리아가 같이 살기도 전에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약혼자가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오더니 잉태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너무도 황당한 현실에 요셉은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자존심도 상했을 것이고 배신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수도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망신을 주는 것으로 양갓음을 하고 싶기도 했겠지요. “왜? 하필 내게만 이런 시련이 오는 것일까?”하고 하느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꿈에 천사의 방문을 받았지만, 요셉은 자신에게 벌어지고 일들을 율법대로 마무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배필 요셉은 하느님의 뜻을 따릅니다.

‘V’=‘V’

하느님은 이따금 우리에게 내 뜻과 의지와는 다른 길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일 때도 있습니다. 번뇌와 유혹 앞에 우리를 세우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성인은 우리에게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가르침은 하느님을 향한 당신의 갈망이기도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하길 바라는 일을 찾는 것.” 하느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일치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콜베 성인은 학생들을 가르치며 $v=V$ 라는 공식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작은 ‘v’(voluntàs)는 ‘우리의 의지’를 뜻합니다. 큰 ‘V’는 ‘하느님의 의지’를 나타내지요. 우리는 날마다 힘겹게 노력하며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느님께서 우리의 그 같은 활동에 당신의 은총을 보태주시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언제나 보잘 것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노력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 아무리 작은 수고라 하더라도 아주 엄청난, 정말 예기치 못한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일을 벌이는데 기력을 쏟아 붓는데 관심을 두지 말고,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무엇인지 찾는 데 더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있는 힘껏, 우리의 힘이 크든 작든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작은 ‘v’를 하느님의 크신 ‘V’에 일치시키는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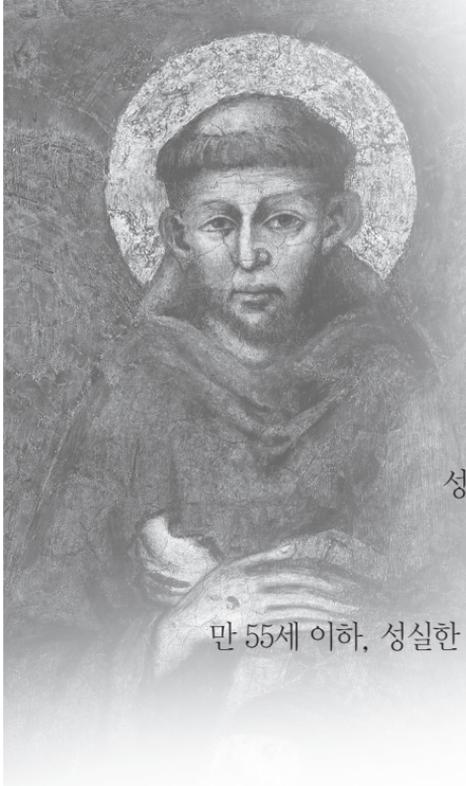
하느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

“여러분의 시련을 훈육으로 여겨 견디어 내십시오. 하느님께서서는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십니다. 아버지에게서 훈육을 받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히브 12,7)

하느님의 사랑과 그분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느님께 내맡긴 믿음과 의지가 때때로 고통과 시련을 앞세우기도 하지만, 그들은 모든 일을 선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을 사랑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하느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뜻이 하느님의 크신 뜻 안에서 이루어 지기를 바라는 좋은 복됩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 세상도 생명도 죽음도, 현재도 미래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1코린 3,21-23)



재속프란치스코회 지원자 모집

주님의 사랑으로,
가정과 세상 속에서,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회원을 모집합니다.

만 55세 이하, 성실한 가톨릭 신자는 누구나 환영합니다.

● 모임 일자

비 안 네 회 : 매월 둘째 수요일 10:20 ~ 15:00 (점심, 미사포함)

보나벤투라회 : 매월 둘째 토요일 09:00 ~ 14:00 (점심, 미사포함)

콜 베 회 : 매월 셋째 수요일 10:20 ~ 15:00 (점심, 미사포함)

요 셉 회 : 매월 셋째 토요일 10:00 ~ 15:00 (점심, 미사포함)

● 장 소 : 끈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원(한남동) 내 안토니오 회관

● 전화 문의 : 한남동 수도원 안내실 02-793-2070

(화요일은 휴무,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문의 가능)

봄

강아만다

먼 산의 잔설
매서운 바람
봄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로사의 그림 속에
테레사의 눈 속에
봄이 먼저 와있네

굳은 땅
마른 가지
봄 아직 인가했더니

베로니카의 노랫소리에
제노베파의 웃음소리에
봄 한걸음에 달려 왔네

틈새 없이 닫힌 창문
차가운 마음
봄 올까 했더니

안나의 미사포위에
글라라의 기도손위에
봄이 활짝 피었네



변수현 로사

주님께 청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순현 마카리오

평화를 빕니다.

지난 12월 20일 사제서품을 받은 고순현 마카리오 수사입니다. 사제품을 받고 기쁜 마음도 있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더 큼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루카 10,3)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마치 그 양이 된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리 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무서운 양들로 보입니다.

2010년에 수도 생활을 시작해서 이제 9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신학원에서 생활하며 준비했는데도 앞으로 펼쳐질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 속에서 생겨났습니다. 수도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청빈, 정결, 순명이라는 말이 ‘아름다움’과 동의어로 들렸지만, 수도원에서 생활해 나갈수록 그것은 ‘힘들고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수도 생활이 힘들어 수도회를 떠나는 선배들과 후배들을 보면서 그것을 더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녁 성무일도를 바치면서 시편의 한 구절이 제 마음에 들어와서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서품 성구로 정한 구절입니다.

“주님께 청하는 것이 하나 있어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러러보고 그분 공전을 눈여겨보는 것이라네.”(시편 27,4)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내가 평생 기도해야 할 게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속에 기쁨과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서품 성구도 정하고 기분 좋게 있는데, 이 서품 성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너무 길어서 외우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제 친구들의 서품 성구를 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또 어떤 것은 네 글자—“야훼 이레” 이런 것들인데, 제 서품 성구가 너무 길다고 생각하던 차에, 주교님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교님이 제 서품 성구를 분명히 물어보실 것으로 생각해서 서품 성구를 잘 외워두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주교님이 저를 보자마자 “자네 서품 성구는 뭐가?”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중간쯤 외우다가 주교님이 저를 너무 빨리 쳐다보시기에 긴장한 나머지 뒷구절은 잘 외우지 못한 채 주교님께 상분을 건네 드렸습니다.

주교님은 웃으시면서 “왜 이렇게 길어?”라고 말씀하시며 사제 생활이 힘들다는 것, 그렇기에 그것을 잘 이겨나가기에 당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힘든 사제직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저와 같은 반에는 평직 수사로 수도 생활을 오래 하다가 나이 쉰이 넘어 사제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수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미사 중에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몇십 년 동안 미사를 하면서도 미사 경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어느 날 미사 경문이 더 명확하게 머리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때 미사 경문 그 자체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수임이 느껴졌고, 그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제가 되려고 했다가보다는 수도자가 되기 위해 수도회에 입회했고, 그 이후 사제가 되기 위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사제직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제는 사제 직무를 행함으로써 자신을 성화시킬 뿐 아니라 그 직무를 통하여 다른 이들도 성화시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제는 교회 안에서 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수도자 또는 사제의 삶은 그것이 단지 하나의 일이 되어 버릴 때, 그것이 자신과 분리될 때 불행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삶이나 자신이 맡은 일이 일정한 목적 없이 단지 매 순간 어려움이나 기쁨이 될 때 그 삶은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자신 안에서 하나로 통합될 수 없을 때 우리는 기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며,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안에 자리하는 각각의 역할을 통합하고 이어주는 것이 바로 종교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미사를 통해 자신의 삶을 통합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직업의 귀천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미사를 통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봉헌합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 또는 각자의 직업들이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게 되고 그에 따르는 어려움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사제 직무를 통하여, 또한 수도자로서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저 자신도 행복한 삶을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임상사목교육 CPE(Clinical Pastoral Education)와 내면의 알아차림

황재민 토마스 아퀴나스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도움을 주고 싶은 이 유가 있다. 나 자신이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경험했고 힘든 시간을 보냈으며 또한 상처와 고통 때문에 하느님을 경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학창시절 부모님의 이혼은 내 마음과 영혼에 큰 아픔이었고 그로 인해 나 스스로도 어둡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친구들의 장난을 여유롭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조금이라도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것을 힘들어했으며, 쉽게 남을 의심하고 결국은 내적인 모든 힘을 발산하지 못해 병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서 더욱 생각이 많아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두려워했으며 수많은 열등감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자 병을 얻어 수술하게 되었다. 수술 중에 죽더라도 하느님이 불러주시기를 기도하며 수술을 받고 회복하게 되었다.

육신의 병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러나 내 마음의 병은 하느님이 지으신 원래의 모습으로 많이 회복되었고 지금도 회복되고 있음을 느낀다. 교구성령세미나와 젊은이 기도회 봉사자의 체험으로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게 되었고

신앙적으로 열성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꾸준히 하느님을 그리워하고 있었고 결국은 지금 살고 있는 폰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형제가 되었다.

이러한 어둠과 절망 그리고 회복과 은총의 체험으로, 또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나와 같은 경험 중에 있는 이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 임상사목교육 CPE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유기서원의 기간을 보내던 중, 프란치스코 가족수도회 작은형제회에서 운영하는 센터에서 첫 번째 CPE를 하게 되었다.

교육에 들어가기 전 슈퍼바이저 신부님과 면담을 하면서 교만의 끝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CPE의 C자도 모르면서 대뜸 신부님과 같은 슈퍼바이저가 되고 싶다고 했다. (물론 긍정적인 시각으로도 볼 수도 있다.) 나는 CPE를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돌봐주는 일로 알고 있었기에 슈퍼바이저가 되는 것을 그리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슈퍼바이저가 되기 위해서는 고통 받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여러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또한 CPE가 그들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자신의 욕구와 원의를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했었다. 물

론 내 원의도 채워져야 하고 내적인 성장도 필요하다. 하지만 난 나만 생각하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면담을 하면서 부서지는 나를 발견했고 충격을 경험했다. 그런 내게 신부님은 ‘CPE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사실 면담 중에 기분이 상했다. 하지만 정곡을 찌르는 신부님의 말은, 순간 내면 깊숙한 곳을 엿볼 수 있게 했다. 고통 받고 소외된 이들은 생각하지 않고 내 목적만을 위해서 CPE를 배우려는 것, 슈퍼바이저가 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신부님 말씀대로 면담을 하면서 CPE 수업은 시작된 것이다.

슈퍼바이저 신부님은 CPE가 자신의 내면을 알아가는 수업이며 수련과정이라고 하셨다. 정말 그랬다. 고통 받고 소외된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숨겨져 있는 모습들, 약점과 강점들을 발견하고 그중 긍정적인 부분은 키워가야 하며 상처 나고 병든 부분은 치유되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이에게 건강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자신의 내면이 건강하지 않고 어둠과 고통 중에 있으며 죽어간다면 타인에게 도움을 주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첫 CPE 수업은 자신의 약점과 한계들을 발견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처음 5주는 그야말로 영혼과 육신의 힘들 그

자체였다.

강화도 신학원에서 서울 정동까지의 통학과정, 수업에서 발견하는 자신의 못나고 나약한 것들은 나를 비참하게 했으며 수업을 하기 싫게 만들었다. 체력적으로도 힘들었지만 그보다는 숨겨져 있던 내면을 만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 지도신부님을 포함해서 9명의 그룹원에게 나의 한계를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긴장되고 부끄러웠으며 때로는 절망적이었다.

지도신부님의 교육방식은 직설적이고 강해서 때로는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했지만 정확하고 섬세하게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촉매제가 되었다. 내 감정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통해 성령께 의탁하는 용기와 겸손을 배웠다.

신부님을 통해 성령께 용기를 얻어 내 감정을 표현하고 또 9명의 관점으로 피드백도 받았다. 하지만 아직 그룹의 분위기는 닫혀있었다. 나부터도 그랬고 서로서로 용기 있고 솔직하게 다가가는 이가 별로 없었다.

그렇게 약5주를 견디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하며 수업에 적응했다. 하지만 여전히 내 한계와 대면해야 했

다. 그래도 지도신부님과 그룹원들의 도움과 사랑으로 조금씩 마음의 여유와 기쁨이 생겨났다.

수업 막바지에는 신부님과 그룹원들의 긍정적이고 명확한 피드백이 내게 큰 힘이 되었다. 점점 밝아지고 힘이 나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나 역시도 용기를 내어 다른 그룹원에게 조언을 하고 있었다. 최종평가에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며 때로는 직설적이고 불편한 이야기들을 나름 여유롭게 나누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지금 와서 느끼는 것이지만, CPE는 참 신비스럽다.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또 다른 나 자신을 발견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지양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이번 첫 CPE는 나름의 용기와 겸손을 얻게 해주었고, 가난해지는 시간이었다. 물론 지금도 그 과정 중이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처음 면담할 때 경솔했던(아무것도 모르면서 슈퍼바이저가 되겠다고 했던 말) 모습을 떠올리며 나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다. 두 번째 CPE 수업이 주어진다면 나의 강점들을 발견하며 그것을 기쁘게 성장시키고 싶다. 교회와 이웃,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원죄 없으신 성모의 기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영성의 사도직

오정순 비비안나

시대적 요구

1949년 수녀회가 창설된 후 회원 양성에 주력함과 더불어 사도직으로써, 콜베 성인과 창립자 신부님이 곧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회원이었던 만큼, 자연스레 곧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사도직을 지속적으로 도와 주게 되었다.

주로 전쟁고아들을 돌보았던 성모의 기사원은 지금도 수녀원 가까운 위치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기존의 부모가 없는 아이들의 양육형태에서 현재는 이혼 가정이나 가정불화로 인한 아이들이 주거하면서 고등학교 까지 그곳에서 생활하고 대학입학 혹은 취업 등 사회에 진출하기 전까지의 생활공간으로 그 양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래서 때로는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데 성공한 선배들이 방문하여 재정적 도움이나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 준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곳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을 때, 원장 신부님의 말씀 속에서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절로 듬뿍 묻어났던 생각도

난다. 한편으로는 시대적 배경에 따라 양상만 달라진 채 여전히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에 대한 복지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 마음이 씩씩하였다.

이렇듯 고아와 노인들을 돌보던 가운데 어느 정도 회원 양성의 기반이 된 본회가 카리스마에 부응하기 위한 사도직을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하였다. 수도회가 나가사키에 자리한 만큼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먼저 떠올렸고 나가사키 시에 알아보던 중, 마침 전쟁 후 어느 때보다도 사회복지시설의 필요성이 요구되던 시기에 지역사회가 본회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사업을 위탁받게 된다. 이리하여 1961년 첫 사도직인 지적장애인 시설이 본원 바로 옆에 자리 잡게 된다.

그 당시에는 일본도 사회복지수준이 발달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들이 많았다. 수녀원 근처에서 실제로 위험상황에 직면한 이들이 발견되고 그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거주공간이 필요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장애인 복지시설 설립 구상과 함께 지자체의 도움으로 건립에 착수하게 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건물을 짓는 일이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기에 여러 장애에 부딪혔다. 일례로 시설을 짓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조건을 검토하던 중 애초 마련된 부지에서 물줄기를 찾아내지 못하는 결정적인 난관에 부딪혔다.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지역에 어찌 건물을 올릴 수 있으랴! 더욱이 생활공간으로 자리할 장소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창립자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간절한 청원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특히 요셉 성인의 전구를 청하면서 기도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새로운 물줄기를, 그것도 물을 풍부히 길어 올릴 수 있는 곳을 찾아냈다고 한다. 그 이후에도 이어지는 어려움들, 특히 환경적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마다 요셉 성인을 통한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해결되었다고 한다.

수도회 모토

본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수도회에서 지은 요셉 경당이 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수녀님들이 가서 요셉 성인께 기도를 드리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미사를 드린다. 이는 창립자 신부님께서 요셉 성인께 전구의 기도를 청하면서 약속한 3가지를 이행하겠다는 관례가 지금껏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3가지란 첫째, 요셉 경당을 지어 그곳에서 미사를 봉헌하는 일, 둘째, 요셉 성인과 관련된 제의 마련, 마지막으로 요셉 성인께 대한 기도와 묵상

에 관련된 책자 완성이다.

이러한 발자취들을 통해 예수님의 양아버지이시며 성모님의 배필이신 요셉 성인에 대한 신심과 성인들의 통공에 대한 창립자 신부님의 순수한 신앙을 엿볼 수 있다. 콜베 성인께서도 마찬가지셨으리라 생각된다. 원래부터 폴란드 국가가 성모님께 대한 깊은 신심이 있기에 당연히 성모님의 배필이신 요셉 성인에 대한 공경과 신심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본원 바로 옆 미사카에 원(園)의 설립 후, 본회의 사회복지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마다라, 요부코, 오이따, 사가 등의 여러 지역에 장애인 시설, 양로원, 유치원, 고아원 등의 복지사업이 수도회 사도직의 주를 이루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어느 노(老)수녀님께 들은 바로는 예전에는 사회복지 일이 지금보다 많이 힘든 때였던지라 수녀님들이 사회복지 외에 다른 분야의 사도직을 희망하며 창립자 신부님께 건의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신부님은 “많은 사람이 사회복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데 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만약 성모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하고 꾸짖으셨다고 한다.

한편 그 즈음 교황청 대사께서 나가사키에 방문하셨다. 그 때 본회의 사도직을 보며,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활동 수도회가 세상 안에서 봉사와 나눔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며 격려와 함께 사회복지 분야의 지속적인 사도직 수행을 당부하셨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지금도 본회가 본당 사목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콜베 성인과 창립자 신부님은 진정한 프란치스칸 제자답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라는 예수님 말씀을 영성의 한 모토로서 사도직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다.



원죄 없으신 성모의 기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수녀
해의선교

사순 시기 (Quadragesima/ Lent)

박용희 아가타

복 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형제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1코린 1,22-25)

전례적 의미

파스카 성삼일과 그 이후의 50일이 전례주년의 중심이라면, 사순 시기는 이 성삼일과 50일을 합당하게 지내도록 그리스도교 백성의 마음과 정신을 준비시키는 기간이

다. 사순 시기는 ‘재의 수요일’로부터 ‘주님 만찬 미사’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신자들은 자신들이 이미 받은 세례를 다시 기억하고 참회 행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에 참여할 준비를 한다.

사순 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에는 온 교회가 단식(斷食)하며, 머리에 재를 었는다. 이 시기의 주일은 사순 제1주일~사순 제5주일이라 부르는데, 특별히 성주간(聖週間)이 시작되는 제6주일은 ‘주님 수난 성지주일’이라고 부른다. 이는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수난하시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기 때문이다. 성주간의 목요일 아침에는 각 교구의 주교가 사제단과 미사를 공동집전 하면서 1년간 쓰일 성유(聖油)를 축성한다.

한편, 초대 교회에서 3세기 초까지는 사순 시기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개 부활 대축일 전 2~3일 동안 예수님의 수난을 기억하였다. 그러나 니체아 공의회(325년) 이후에는 40일로 그 기간을 정하였고, 그레고리오 교황 때부터는 ‘재의 수요일’이 사순절의 시작일로 정착되었다.

‘40’이라는 숫자는 그리스도께서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일간 단식하며 기도했던 데에서 유래한다. 이외에도 구약성경에서도 ‘40’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한다.

노아의 홍수 기간이나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 단식했던 기간, 또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방랑 기간,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던 기간 등은 모두 '40'이라는 숫자와 연결되어 있다.

사순 시기 동안 전례는 우선 사제의 제의(祭衣) 빛깔이 보라색으로 바뀌고, '알렐루야'와 '대영광송'을 부르지 않으므로 회개와 보속의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한다. 또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엄격히 단식하던 것을 본받아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려 노력한다. 그래서 40일 동안 단식과 금육(禁肉)을 통해 절약한 것을 모아 두었다가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애덕을 실천한다.

묵상

사순 시기는 교회 전체가 회개와 희생 그리고 자선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느님 백성'이라는 교회의 정체성을 일깨워준다. 그 때문에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이 사순 시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완전히 결합될 수 있는 은총을 청해보자.

작품설명

‘수난을 통해서만 영광스럽게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경청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은 것을 실천함으로써 주님의 부활을 잘 준비해야 하겠다.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느님께 바치는 내적인 회개를 수평형의 화살나무로 표현하여 십자가 형태의 화기에 담아 보았다.



작품소재

칼라(천남성과) *Zantedeschia* spp.

아네모네(미나리아재비과) *Anemone coronaria*

헬레보리스(미나리아재비과) *Helleborus* spp.

안스리움 (천남성과) *Anthurium andraeanum*

명자나무(장미과) *Chaenomeles speciosa*

매실나무(장미과) *Prunus mume*

뱅크시아(프로테아과) *Banksia burdettii* Bak. f.



(사)한국꽃문화진흥협회 이사장
(사)한국꽃문화진흥협회 라강시엘 화예디자인연합회장
전국전례꽃꽃이연구회 상임 위원
대전기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례꽃꽃이교육원 지도 교수

제주지구 방문



2018년 11월 3~4일, 성모 기사회 위원장 구원모 콜베 수사는 제주지구 회원들을 방문했습니다. 3일 토요일에는 제주 동문 성당 모임, 4일 주일에는 광양 성당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주지구는 여건상 성모 기사회 지도 수사가 매달 방문하기 힘듭니다. 보통 한국 교회 내에서 사제 또는 수도자가 함께하지 않는 신심단체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 예외가 바로 제주지구 성모 기사회입니다.



제주지구 회원들은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가 아니라 성

모기사회 기도 모임을 중심으로 모임을 가집니다. 이 제주지구를 모델로 하여 미사 없이 할 수 있는 성모기사회 기도 모임 양식이 제작되었습니다.



‘원죄 없으신 성모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는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성인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제주지구 성모기사회원들에게 성모님을 통한 주님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빕니다.



사제 · 부제 서품식



2018년 12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 인천 갈산 성당에서 고순현 마카리오 수사가 사제품을, 김민석 안젤로 수사와 신재희 베드로 수사가 부제품을 받았습니다. 사제와 부제로 부르심을 받은 세 명의 형제들이 성 프란치스코의 거룩한 복음적 삶의 양식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직을 충실히 따를 수 있도록 기도 중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멜버른 한인 성당 방문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에 선교사로 파견된 김욱 다윗 수사의 요청을 관구장님께서 승인하셔서 선교후원회 담당 구원모 콜베 수사는 2018년 12월 대림 제4주일과 주님 성탄 대축일에 멜버른 한인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대림 특강과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를 함께한 멜버른 한인 성당은 김욱 다윗 수사가 담당한 이후,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프란치스코 영성 안에서 점차적으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정신을 따라 머나먼



호주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는 김욱 님과 수사와 멜버른 한인 성당에 원죄 없으신 성모님을 통한 주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지구 봉헌식



2018년 12월 1일, 토요 성모 신심 미사 때 부산지구 대연동 기사회원들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면서 성모님의 충실한 자녀로서 세상의 악과 싸우는 성모기사회원이 되겠다”고 봉헌 갱신을 하였습니다. 이들의 각오가 변치 않도록 원죄 없으신 성모님을 통한 하느님 은총이 가득 하길 기도드립니다.



인천지구 신년 행사

1월 5일, 성모기사회 인천 지구는 새해를 맞이하여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 후에 떡국잔치를 가졌습니다. 이날, 미사 참석 인원은 190여 명을 넘어섰고, 홍민용 수사님이 촬영한 벨기에 바뇌의 성모님 발현 영상을 통해 성모신심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프란치스코의 벗 미사

은인들과 관심 있는 모든 분이 함께하는
감사와 나눔의 시간입니다.

- 대 상 : 성소후원회원, 해외선교후원회원, 성모기사회원
재속프란치스코회원, 일반 신자
- 내 용 : 미사 전 칠락묵주기도와 고해성사
미사 중 프란치스코 영성 강좌 및 양형영성체
미사 후 성인유해 축복 또는 안수기도

● 미사 안내

지역	장 소	시 간	월모임	전 화
대 구	월배 성당	오후 7:30	둘째 화	053-636-1302
부 산	대연동 성당	오전 10:30	둘째 수	051-622-0635
	기장 성당	오전 10:30	넷째 토	051-721-2273
서 울	한남동 수도원	오전 10:30	셋째 월	02-793-2070
인 천	갈산동 성당	오전 10:00	셋째 토	032-513-4601

● 성소모임 안내

담 당 : 흥민용 알로이시오 신부

대 상 : 중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인 미혼남성

남부 모임 / 대구 : 월배 수도원

053) 636-7427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4시)

북부 모임 / 서울 : 한남동 프란치스코 수도원

02) 793-2070 (매월 둘째 주일 오후 2시)

성소후원회

수도회의 수도자 양성과 교육을 위해 도움을 주실
벗을 기다립니다.

● 후원 계좌 안내

예금주 : (재) 천주교 꾀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 한 : 140-002-932457

국 민 : 026-01-0344-810

지 로 : 7620247

해외 선교 후원회

해외 선교를 위한 수도회의 역할과 사명에 함께하
실 벗을 기다립니다.

● 후원 계좌 안내

예금주 : (재) 천주교 꾀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 한 : 140-009-830476

농 협 : 301-0116-9633-21

국 민 : 295401-01-183491

성모기사회 미사 · 월모임 안내

지 역	월 모 임	시 간	장 소	연 락
대 구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프란치스카눔(월배 수도원 뒤)	053-636-7427
	셋째 토요일	오후 7:00	프란치스카눔(작은 꽃모임)	
	넷째 주일	오후 2:00	월배 수도원(7080 젊은이 모임)	
대 전	둘째 토요일	오전 10:00	대흥동 성당	042-256-6562
부 산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기장 성당	051-721-2273
		오전 11:00	대연동 성당	051-622-0635
	첫째 주일	오후 12:00	대연동 성당(작은 꽃모임)	051-622-0656
부 천	셋째 토요일	오전 10:00	중1동 성당	032-325-0342
서 울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한남동 수도원	02-793-2070
수원·안양	넷째 토요일	오전 10:00	매곡동 성당	031-233-7185
양 평	첫째 토요일	오전 11:00	양평 수도원	031-771-6138
인 천	첫째 토요일	오전 10:00	갈산동 성당	032-513-4601
전 주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효자동 성당	063-223-3821
		오후 7:00	효자동 성당(작은 꽃모임)	
제 주	첫째 주일	오후 12:00	광양 성당	064-753-4498
	첫째 토요일	오후 5:00	동문 성당	064-757-8866
미 국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토랜스 성프란치스코 한인성당	1-310-380-4647
호 주	둘째 화요일	오전 11:30	멜버른 한인성당	61-422-673-889

※고해성사 및 묵주기도는 미사 30분 전부터 있습니다.

● 후원금 안내

이 책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만들어지는 순수 종교 잡지입니다. 학교, 병원, 회사, 복지 시설 등으로 무료 배포되며,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모든 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한 미사와 기도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계좌번호

7529076

● 자동이체 할 때 (사무실로 확인전화 부탁드립니다)

예금주 : (재) 천주교 쾰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국 민 : 031601-04-200636
농 협 : 317-0007-3146-21
신 한 : 140-012-038430
우 리 : 1005-803-349775
우체국 : 102566-01-005494
하 나 : 274-910011-99204

● 해외에서 송금할 때

Bank Name(은행명) : Hana Bank
SWIFT CODE : KOEXKRSE
Address(주소) : Seoul Korea
Account(계좌번호) : 274-910011-99204
Beneficiary(수취인) : Order of Friars Minor Conventual

성모님의 마음을 담은

성모기사

등록번호 : 경기 라 00521
2019년 03월 통권 506호

발행인 : 정진철

편집인 : 구원모

편집장 : 구원모

편집위원 : 이상태, 한규희

편집 : 기획 - 김영태, 안춘옥

사진 - 이신형, 홍민웅

인쇄 : 명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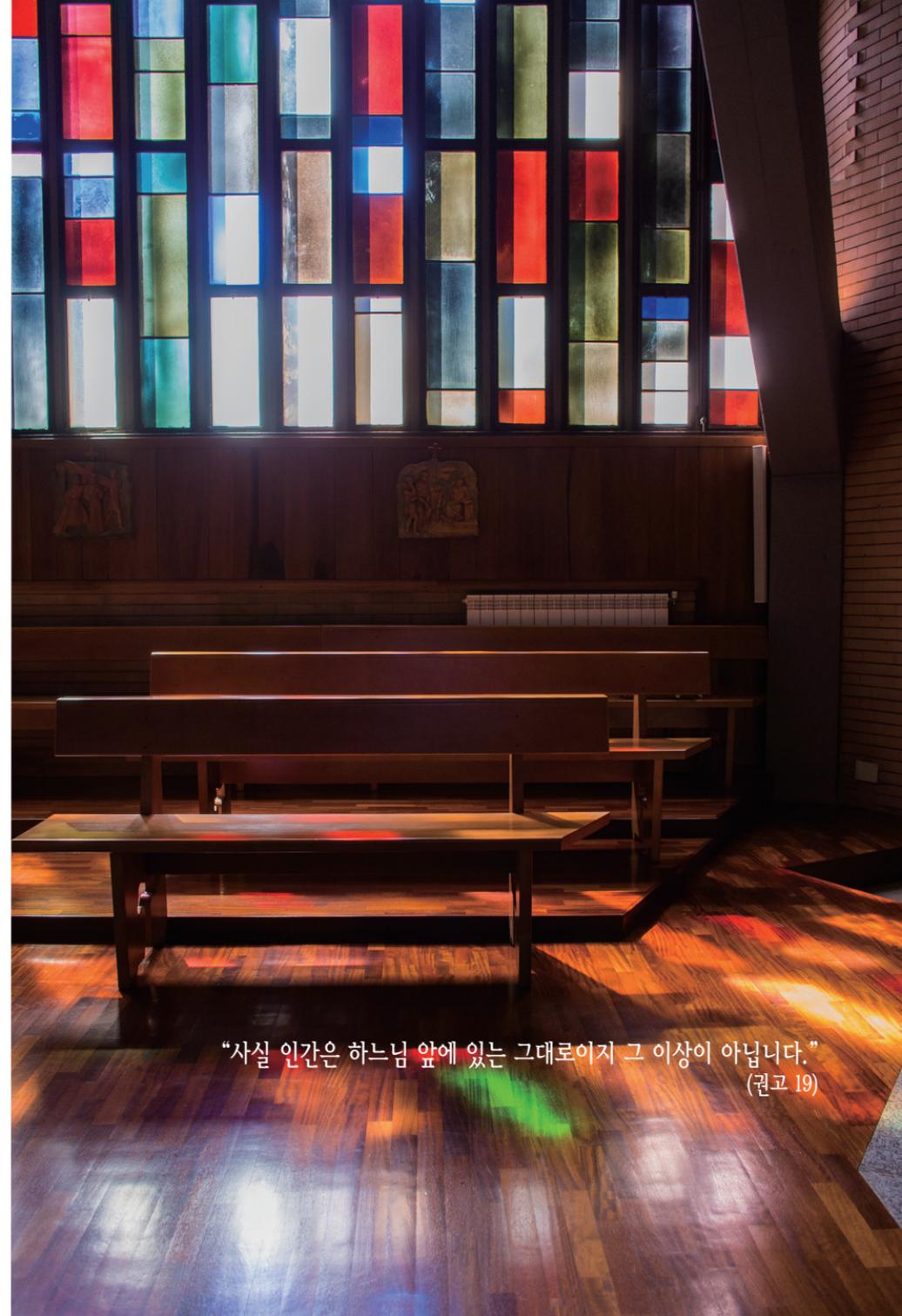
발행처 : 재단법인 끈뎀두알프란치스코 수도회
성모기사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혜화로67길 35
(구 : 서울특별시 중로구 혜화동 5-92)
우편번호: 03067

전화 : 02-745-6134 (사무실)

팩스 : 02-745-6135

홈페이지 : ofmconv.or.kr

전자우편 : mikorea@catholic.or.kr



“사실 인간은 하느님 앞에 있는 그대로이지 그 이상이 아닙니다.”
(권고 19)



“하와의 불순종으로 맺어졌던 매듭이
마리아의 순종으로 풀리었다.
처녀 하와는 불신앙으로 그것을 얽어매었고,
처녀 마리아는 신앙으로 그것을 풀었다.”

- 리움의 아레네오 -